

정보 TIP

섬·산간 등 오지 TV 난시청 없앤다

방송위원회는 최근 KBS, 지방자치단체, 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와 공동으로 TV를 시청할 수 없는 섬이나 산간 벽지 등 절대 난시청지역에 대한 수신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총 사업비 180억원을 들여 절대 난시청지역에 거주하는 약 6만 가구에 난시청 해소용 패키지 프로그램인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수신 설비를 무료로 제공한다. 시기별로 올해엔 1만 가구, 내년엔 5만 가구를 상대로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KT, 초·중고생 전자참고서 출시

PC나 휴대용 단말기로 공부할 수 있는 초·중학생용 전자참고서가 나왔다. KT전남본부(본부장 송기유)는 27일 종합교육기업 해피한교육과 함께 만든 초·중학생용 전자참고서 '7WISE(세븐와이즈)' 해피짱(www.7wisewizang.kr)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전자참고서 7WISE 해피짱은 읽기 위주의 종이 학습서에 수록된 내용을 파일로 담아 PC,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등 전자단말기를 통해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한 멀티미디어 기반의 온라인 학습 시스템과 접목한 신개념 교육서비스다.



KTF, 유무선 사이트 'SHOW' 통합

KTF 'SHOW'(www.show.co.kr)가 자사 웹사이트 '매직엔'(www.magicn.com)을 흡수, KTF 대표 포털 사이트로 거듭난다.(사진) KTF(대표 조영주)는 유·무선 인터넷의 사용자 환경 개선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28일부터 유선인터넷 매직엔을 3세대 대표 브랜드 쇼 홈페이지로 통합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네이트닷컴' 금융교실 서비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최근 자사 포털사이트인 '네이트닷컴'과 온라인 매신지 '네이트온'을 통해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교실'(jaetech.nate.com/school)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영상 애니메이션과 퀴즈 등을 통해 재미있게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금융상태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각종 금융도서를 전자책(e-book)으로 제공하고 어릴 때부터 직접 경제생활을 키울 수 있도록 '독본 마린 계산기', '용돈 기입장' 등도 서비스 한다.



직장인 조양원(34·광주시 동구 계림동)씨는 최근 부모님 설 선물로 소형게임기를 하나 샀다. 조씨는 "매년 설 때 용돈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뇌 운동도 되고 깜짝 즐거움도 선사하는 게임기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설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부모님을 위한 설 선물로 IT기기를 고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IT기기를 선물하면 디지털카메라 정도였지만 최근엔 소형게임기, 디지털액자, 휴대용 노래반주기 등 중·장년층이 좋아할 만한 특별한 제품이 쏟아져 나왔다. 젊은층의 전유물이던 IT기기가 효도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치매 예방용 게임기=한국 상륙 1년 만에 100만대가 팔린 2007년 최고 히트상품 닌텐도DS는 중·장년층에게도 인기가. 온라인 쇼핑몰 옥션(www.auction.co.kr)에 따르면 닌텐도DS(26만원대)의 구매자 중 40~50대의 비율이 30%에 달한다. 닌텐도DS 한글판이 출시돼 노인들도 쉽게 즐길 수 있다.

◇휴대용 노래반주기=휴대용 노래반주기는 최신 휴대용 악기로서 휴대성이 뛰어나며 악보가 필요 없이도 디지털 악보를 통해 편리하게 볼 수 있다. 인테이어 효과를 높인 삼성의 8인치 디지털액자 SPF-83H(16만원대)는 USB를 통해 편리하게 저장할 수 있다.

올 설엔 부모님께 게임기 선물 어떨까

치매예방용 게임기·노래 반주기·디지털 혈압계 뇌 운동에 깜짝 즐거움까지... 효도상품으로 각광

어진다든 것이다.

◇효자·효녀의 필수품=부모님께 매일 얼굴 보여드리려는 것만큼 큰 효도는 없다. 3G폰은 부모님과 서로 마주하고 안부를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효자·효녀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다. KTF용으로 제작된 LG전자의 '논외피폰(KH-1200)'은 디자인에 비해 자판도 큰 편이어서 눈이 좋지 않은 어르신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실속형 슬라이드폰(SCH-W290/SPH-W290)'은 전화번호 바로검색 기능이 있어 손쉽게 이름을 찾을 수 있다.

M의 메모리가 장착돼 있어 100장의 사진을 한꺼번에 저장하고 감상할 수 있다. 무선네트워크 기능을 통해 저장된 사진들을 별도의 연결 없이도 디지털 액자를 통해 편리하게 볼 수 있다. 인테이어 효과를 높인 삼성의 8인치 디지털액자 SPF-83H(16만원대)는 USB를 통해 편리하게 저장할 수 있다. ◇'효' 주변기기도 눈길=마이크를 TV에 연결하면 즉시 노래방이 되는 휴대용 노래반주기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30만원 안팎에 판매되고 있다. 마이크 안에 6천850곡이 내장된 엔터기술의 매직싱 마이크 노래반주기(ED-8000)는 최대 8분간 본인의 노래를 녹음할 수 있는 녹음기능도 갖췄다. 노인전용모리돈(1만9천원)은 모든 버튼을 일반

제품에 비해 2~3배 가량 크게 제작해 돋보기를 쓰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고 렌턴확대경(4천900원)은 어르신들이 신문, 책 등 작은 글씨를 읽을 때 글씨를 확대시켜 줘 눈에 피로감을 덜어준다. 또 휴대폰 화면을 1.5배 확대시켜 주는 휴대용 확대경(6천500원), '큰 숫자 계산기'(9천원)도 인기 있는 제품이다. 건강기기도 빼놓을 수 없는 효도상품. 삼성의 손목형 디지털 혈압계 SHB-100W는 맥박주기 뿐만 아니라 수축기와 이완기의 혈압을 신속하게 측정해 준다. 편안한 쿠션과 마사지 기능을 겸비한 쿠션 안마기(4만~9만원대)도 인기다. 야외에서 일하거나 외출이 잦은 부모님께는 손나로·귀마개·오일 세트가 제격이다. GS이숍(www.gshop.co.kr)은 '손나로 3중 세트'(1만9천900원)를 100개 한정으로 내놴고 틀니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GS이스토어(www.gstore.co.kr)에서는 '틀니세정제'(6개월분, 4만2천750원)를 판매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하나TV '콘텐츠 유료화' 집단분쟁

이용자·녹색소비자연대 '조정신청' 등 반발 확산

하나로텔레콤이 인터넷TV(IPTV) 서비스인 '하나TV' 이용자와 집단 분쟁에 휘말렸다. 27일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이 제공하는 '하나TV'에 대해 서비스 변경을 이유로 이용자 62명과 함께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녹소연은 이번 1차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이어 다음달 1월까지 2차 참가신청을 받아 추가 조정신청을 낼 계획이다. 녹소연은 하나로텔레콤이 지상파 TV 프로그램을 본 방송 후 12시간이 지나면 무료 시청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가입자들

은 일로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게 되면 앞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2006년 7월 하나TV를 분장, '지상파방송의 주문형비디오(VOD)'를 방송 다음날 무료로 볼 수 있다고 약속하고 현재 계약 80만명의 가입자를 모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16일 지상파방송사와 재계약에 따라 프로그램 한 편당 500원의 이용료를 받는 유료로 전환했다. 또 본방송 후 12시간이 경과하면 무료로 볼 수 있던 7일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하나로텔레콤은 일단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편당 500원의 이용료 중 300원을 가입자들에게 적립해주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광통신연구센터 기술개발 지원 86개 업체 매출 2,600억 늘었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주 광통신연구센터(센터장 김봉태)가 국내 광통신체 기술개발을 지원해 2천600여건의 매출증대 효과를 거뒀다. 27일 광주 광통신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ETRI가 전남대 경영연구소에 의뢰해 광통신연구센터의 '광통신부품 개발기술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조사한 결과, 지난 한해 동안 우수출력선, 올레톤 등 광주지역 광통신업체 16곳을 비롯해 전국 86개 업체의 매출이 2천6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해 온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86개 업체에 740건의 시험 및 설계, 공정, 고장분석 기술을 지원해 총 37억 원의 시험비용 절감효과를 거뒀다.

또 기술 개발기간은 11개월 단축돼 100억원을 절감하고 지원 건수와 업체 수도 연평균 31%, 21%씩 증가세를 보이는 등 광산업체의 매출 증대와 R&D 역량이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광통신연구센터 김봉태 센터장은 "광통신 분야 기술지원은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기술문제 해결은 물론 광주가 광클러스터 메카로 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TRI 광통신연구센터는 국내 광통신업체의 진흥과 광통신부품의 품질향상(52개 항목) 등을 위해 지난 2001년 광주에 설립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일가공인중개사 (대)234-8216... 상가건물 매매... 전원주택... 기타부동산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목욕탕 임대 급히 구함... 시외 농정부지 급히 구함... 상가 건물 급매... 수익성 좋은 원룸

국민공인중개사 011-635-7939... 건물... 땅... 주택... 공장 급매... 12억 부원 의원용 건물 급매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011-612-3421... 경매 투자자 투자상담 환영... 감정가50%공사지50%이하 건물 긴급매매... 2007년도 광주지역 예상장 선호도!! (극장식 워딩) 만족도!! (음식이 맛있기로 소문난) 1위업체선정!!